

경북도, 올해 세계무대서 빛나... 내년 국제교류 강화

기존 협력사업 내실화 및 이란 이스파한주 등 교류지역 확장

기사입력 2016.12.21 16:06:01 | 최종수정 2016.12.21 16:06:01 | 김희정 | shine@kukinews.com



[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신도청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한 경상북도는 올 한해 지속적인 세계화 정책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경북도는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기존의 아시아 중심의 국제교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경북'에 초점을 맞추고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10일 개최된 신청사 개청식에 세계 곳곳에서 축하 행렬이 이어졌다.

지역행사에 이례적으로 각국 주한 대사 22명 등 30개국 외교관이 참석하고, 해외언론에서 현장을 취재했다. 14개국 20개 해외자매우호 단체에서도 축하사절단·우호기념품·축전을 보내오는 등 돈독한 우의를 표시해 왔다.

또 5월 17일 국민방문을 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김관용 도지사의 면담은 국제사회에서 경북도의 위상을 가능할 수 있는 성과였다.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유일하게 가진 단독 면담이었다.

두 사람은 새마을 세계화, 통상 및 투자확대, 해양·문화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북도정의 세계화와 아세안 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같은 달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장가계(張家界)의 고장이자 한류의 중심지인 후난성(湖南省)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 중국내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참여 및 양 지역 의회 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등을 통해 교류의 맥을 이어오던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양 지역 교류협력의 전환점이 됐다.



기존의 자매우호도시들과도 내실 있는 교류를 지속했다.

특히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와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렘첸코(Levchenko) 이르쿠츠크 주지사가 경제인, 공연단 등 50여명의 친선사절단을 이끌고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제인교류회, 문화콘서트,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에 화답해 9월 26~30일까지 경북도 대표단(단장 우병운 정무실장)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된 동북 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와 20주년 기념식, 도-이르쿠츠크주 경제인교류회에 참석하는 등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이어갔다.

아울러 지난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베트남 타이응웬성과는 새마을연구소, 문화엑스포 등을 통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도청 개청을 계기로 리수펀(李淑芬)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정협부주석, 산시성(陝西省) 공무원 연수단, 디오고(Diogo) 앙골라 국토행정부 장관 및 말롱구(Malungu) 주한 앙골라 대사,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대표단 등 세계 각국에서 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조화된 신청사에 감탄하고 경북과의 다양한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러한 올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기존의 해외자매우호 지역과의 문화·청소년 등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러시아 연해주 및 이란 이스파한주와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에도 박차를 가해 교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신도청 이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경북의 정체성을 알리고 새로운 교류협력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새마을 세계화, 세계문화엑스포 등 세계무대에서 빛나는 경북의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바탕에는 해외자매지역과의 끈끈한 관계 유지가 있는 만큼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5년부터 해외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초청 한국어연수사업을 지속해 14개국 78명의 한국어연수생을 배출했다. 6개월 동안 해외 공무원들을 경북으로 초청해 한국어교육 및 경북의 문화·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다.

지난 7월에는 해외자매우호지역 청소년 초청 ‘글로벌 청소년 문화캠프’를 개최해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경북의 멋과 맛을 알렸다. 첫 캠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터키 등 4개국 6개 지역 57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2016. 12. 23.

쿠키뉴스

또 도와 중국 지린성(吉林省)은 공무원 상호파견을 통해 양 지역의 행정, 문화 등을 체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shine@kukinews.com

김희정 (shine@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